

# 도의회, 도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 본예산 대비 1조2212억원 증액 10조3217억원 규모 심사 앞두고 내실 다지기 위해 전문강사 초청 연찬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7일 오전 연찬회를 갖고 27~29일까지 2022년도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들어갔다

본예산 대비 1조2212억원이 증액된 10조3217억원 규모의 전라북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 예산심사를 마치고 27일 오후부터 예결위 본심사에 들어간다.

고물가 인한 서민경제 안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소득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심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27일 오전 외래전문강사를 초청, 연찬회를 마련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예결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연찬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혁신학교 공모 중단, 반민주적 행정 폭력”

### 전북 혁신학교 연대(준), 성명서 통해 규탄

전북 혁신학교 연대(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혁신학교 공모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전북교육청을 규탄했다.

이 단체는 혁신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교사 30여 명이 모여 긴급하게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지난 22일 각 학교에 혁신학교 공모를 중단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그 까닭은 '더불어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2022 혁신교육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신규 혁신학교 공모를 교육감이 바뀌자마자 바로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이번 혁신학교 공모 중단은 반민주적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먼저, 12년 동안 이어왔던

혁신교육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학교혁신의 물결에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다. 민주적 자치공동체, 학생 중심의 교육을 기치로 생동감 넘치는 학교로 만들고자 했던 혁신교육은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힘에도 혁신학교 공모를 중단한 것은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어 온 혁신 교육의 수명이 다했음을 선포하는 것이자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송두리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신규 혁신학교 준비를 위해 애쓴 학교에 크나큰 실망감을 줬다. 혁신학교 공모를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끊임 없는 토론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기 위한 수많은 노력으로 신규 혁신학교 신청을 한다. 과연 이 학교가 겪었을 실패감과 좌절을 들여다 볼 마음은 있는가. 그저 공문 한 장으로 교육공동체의 노력을 꺾은 채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현상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도 않고, 의미나 취지도 설명하지도 않은 채 공문 한 장으로 지침을 내리는 반민주적 행정의 전형이다. 12년간 이어온 혁신학교 운동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의견을 받는 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그냥 받아들여라!'는 통보형 공문에 학교 현장에 상실감이 휩싸여 있다. 더구나 이런 내용을 미리 언론에 흘리고 바로 공문으로 보내는 행태는 애써 만든 민주적 학교 문화를 단번에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언급했다. /정은성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 “공립유치원 확보, 교육감의 의무”

### '군산 신역세권 공립단설유치원 재검토 지시'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 신역세권 공립단설유치원 재검토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군산 신역세권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유치원 신설이 기존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

전북지부는 "해당지역은 택지개발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라 7천 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예상 유아수는 3백백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유치

원은 하나도 없고 거리상으로 3km나 떨어진 유치원들은 유아가 모두 차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아교육법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조항)는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입 교육감이 계획을 세워

자체투자사업을 마친 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형법상 직권남용죄"라며 "취소가 현실화되면 서거석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청이 좋은 교육기회를 세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신도시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바라는 방향"이라며 "유치원은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총량제 적용도 받지 않아 신설이 자유롭다. '유아학교'로서 '공교육'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북 지역에 공립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성 기자

## “공립유치원에도 추가로 1인당 13만5000원 교육예산 지원을”

### 전북교사노조,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의견 정정 요청 “공립유치원 학부모 원비 내고 있다는 의미 아냐” 거듭 주장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25일 낸 성명서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에 대한 전북교사노조의 의견에 따른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립유치원은 학

부모들이 별도의 원비를 내지 않는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원별로 학부모 원비 납입액이 다르다.

전북교육청의 추가지원금 결정은 사립유치원에만 월 1인당 13만5,000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교사노조 임장은 공립유치원에도 추가로 1인당 월 13만5,000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라는 것.

그러면서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원비를 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용처 확대해야”

### 박용근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7일 전북도 소관 추경 제1차 회의에서 남북관계 호전 시 집행 예정으로 적립 중인 107억원 가량이 3년간 집행 실적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경기도 등 타 시도의 경우 적극적인 남북사업은 진행하지도 못한 대신에 통일교육사업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것을 감안해 기금 사용처를 다양화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남북교류협력 가능성이 될 때를 대비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처 확대 및 명칭을 변경을 위한 조처 개정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전북선거방송토론위 고교생 대상 토론회

### 내달 한달간 참가신청 접수 본선 9월 22일 토너먼트로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2 전북 고등학생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성숙한 토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진행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2인 1팀을 구성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jelection@naver.com)로 신청을 하면 되고,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http://jbec.gok.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선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서류 및 동영상으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여 본선에 진출한 4팀을 선발하고, 본선은 9월 22일 전북선관위 회의실에서 토너먼트 대면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2팀에게 상장과 상금(금상 60만원, 은상 40만원, 동상 2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팀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1월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에 전북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부여한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학생들이 올바른 토론관을 정립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이 27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업유치특위 구성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초당적 기업유치특위 제안”

### 민주 김수홍 의원, “도내 정치·경제·사회 문화계 주요 인사 총망라… 전북만의 매력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이 초당적인 전북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주요 인사를 총망라한 기업유치특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안한 특위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등 시군 단체장과 진영 전북의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비특혜 전북을 연구로 둔 경제, 교육,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를 위한 도내 모든 유형별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기업 유치 현실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전북은 새만금 사업, 탄소산업,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중시

으로 발전 전략을 꾸려왔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만한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외를 막론하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편린일률적인 행정, 세계지 원만으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유망 분야를 비롯해 전북을 연구로 둔 경제, 교육,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다.

김수홍 의원은 “전북의 발전전략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며 “기업유치특위를 통해 전북의 기업 유치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촉

### 도의회,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7인 구성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27일 의정실에서 '제5기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윤리·행동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임기는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도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에 근거해 2014년부터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제5기 자문위원 구성은 4기 위원 임기만료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야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양균 위원(前 전북대학교 교학부총장, 前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도의회의 윤리·행동강령 실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문위원으로는 신양균 전 전북대 교학부총장, 국윤호 법률사무소 민성 변호사, 김민수 뉴스1 전북본부 정치부 기자,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사 정보센터 소장, 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김경수 기자

## 순창군의회 의정 방침 '소통·변화·창의·현장'

### 제9대 새 슬로건 등 선정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아)가 27일 제9대 의정활동의 지표가 될 슬로건과 의정방침을 선정했다.

최근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결과 슬로건은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의정방침은 '소통하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혁신 의정, 창의적인 선진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으로 결정했다.

신정아 의장은 "새로 선정된 슬로건

과 의정방침이 혁신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9대 순창군의회는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순창군의회가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셈이다. 4년 후 순창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순창=이양원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